

**2017신년  
메시지**

## 마음에 새겨진 새로운 언약

<예레미야서 31:31-34>



총회장 김성제 목사 (나고야교회)

구약신학 연구를 위하여 미국 GTU(연합신학대학원)에 유학하던 시절에 구약성서를 히브리어 원서로 정독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한 유대인 친구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그는 제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지만 제가 구약성서를 구약이라 말하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경전은 구약이라 말 할 것이 아니라 성서(The Bible)라고 말 해야 한다」 며 강한 반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써 그 때 비로소 유대교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었고 그 후로 미국 유학 중에는 구약성서를 히브리 성서라 부르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훗날에 「예레미야31:31에 나타난 새로운 언약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그에게 물어 보았을 때 그는 잘 모르겠다」 는 대답을 하였고 그 때 일이 제게는 아직도 인상깊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때 저는 마음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새로운 언약이라는 사실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비록 구약성서의 3대 계약(아브라함의 계약 <창세기15,17장>, 시내산 계약 <출애굽기 20-24장>, 다윗과의 계약 <사무엘하7장>)은 기원전 10세기 무렵인 다윗왕조시대부터 기원전 586년 바빌론 제국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성전이 파괴되고 바빌론 포로까지의 400여년 동안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파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불러 일으키시기 위하여 새로운 언약의 희망을 마련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희망의 예언서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레미야의 본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성서를 신약성서라 일컬으며 이를 통하여 히브리어 성서와 구분짓게 하는 성서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언약이란 무엇인가요. 비록 저희들은 수천 년 전 부터 언약 공동체로써 자리 잡았던 유대인이 아니지만 저희들 또한 <구약>에서 <신약>까지의 삶의 여정에 따라 제 각기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도 저희 스스로 속죄 할 수 없는 죄인으로써 현실 세계를 고통과 번뇌 가운데 방황하며 어긋난 과거를 지울 수도 잊을 수도 없는 죄짐과 후회를 반복 하다가 결국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주님께 붙들린 자 되어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이야말로 저희들의 순리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러한 과정은 그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구원을 향한 한편의 드라마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종교개혁자 마틴루터는 스스로가 속죄받아 구원 받은 존재라 생각을 하며 타성적인 교회생활을 안이하게 하는 신앙적 타락성을 경고하며 이와 같이 말 했습니다.

“의로워진 자이나 동시에 여전히 죄인 된 자” (simul justinus

et peccator) 요, “지금도 현실 속의 죄인인면서 끝없는 미래를 향한 의로운 자” (justinus in spe, peccator in re) 로써 기독교인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대하여 <신약>은 언젠가 세월이 지나면 오래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新: 새로움」은 오직 단 한번의 유일한 것, 마지막 구원의 길 이라는 의미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자들의 타락이 만연한 현실 가운데서도 도대체 지금까지 교회는 그리고 기독교인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오직 부와 명예를 축복의 표징 삼아 교회 생활을 통하여 그것에 매달리고 이 세상의 정의와 공평이 깃잡히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멸시 천대가 끊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애용하시는 하나님의 슬픔을 까맣게 잊고서 이 세상의 예언자적 직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던가. 오늘날 정치적 격동의 풍파 속에 휘몰리게 된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교회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깊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던 사실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새로운 언약을 마음에 새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을 문자화하여 서적으로 남긴 것에 대한 대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 배후에는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요시아왕이 기원전 622년에 성전 복구 중 발견한 계약서(오늘날의 신명기의 원형이라고도 얘기 되어 집니다) 읽고 충격을 받고서는 스스로의 옷을 찢고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추진했던 에피소드(열왕기하22장)가 있습니다. 즉 다윗왕조 이후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서적으로써의 하나님의 말씀을 등안시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해야 하는 신앙적 본문을 망각하고 심히 타락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국가와 민족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요시아왕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요시아는 이를 알게 됨으로 우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왕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속에 깊이 새기고 종교개혁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언약이란 단순히 서적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항상 회개의 신앙을 되새기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자 계약이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재일 동포의 터전인 재일대한기독교회는 올해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그것을 기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500주년이 그저 일개 축제로 끝날 일이 아니라 재일대한기독교회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 그리고 재일동포 안에서 쓰임 받아서 화해와 평화 공존의 선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한 언약 공동체가 될 것을 저희 교역자들과 장로 신도들은 다시 한번 자각하고 회개와 개혁의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신년 포부** 상처받은 마음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노력  
관동지방회장 김근식목사



2016년은 병신년(丙申年)이었습니다. 시골시 끌하고 정신없는 한 해였습니다. 어지러운 나라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도 2017년 에는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정의, 평화, 평등,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은 닭띠의 해 정유년(丁酉年)입니다. 닭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닭의 울음이 새벽을 알리는 것처럼 선언, 깨달음을 의미한다고 하고 새로운 세상의 시작과 위인의 탄생을 알리는 의미라고 하는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 뜻풀이처럼 정말 새벽을 알리며 기도하는 우리 재일대 한기독교회의 모든 교회와 신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국의 정치적 현실을 바라보면서 2017년에는 더욱 지도자의 중요함을 깨닫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에는 그래서 이러한 희망 <希望> 을 가져 봅니다. 먼저 관동지방회 회장으로서 ①동경교회로 발단된 상하고 찢긴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②이러한 아픔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한편으로는 원칙과 질서를 바로 세워가며 또 한편으로는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 되는 모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한 교회의 목사로서는 ①부임한지 9년째 되는 교회의 담임목사로서는 끊임없이 교회의 본질과 목사의 정체성을 스스로에게 물으며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②관동지방회의 중심된 교회로서 지방회를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 섬김이의 역할을 감당하려 합니다.

2017년은 조국 대한민국은 물론이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가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들이 되기를 바라며 총회와 지방회에도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의 눈물을 쏟아냈던 베드로와 같은 통곡의 기도로 새 시대를 준비하고 열어나가는 우리 총회와 지방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년 포부** 회복과 은혜의 해가 되기를  
중부지방회장 전병옥목사



중부지방회는 10개의 교회가 은혜가운데 2016년을 무사히 보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는 중부지방회로서는 많은 변화와 회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새롭게 오카자키교회 목사, 교우들과 함께 지방회를 다시금 섬길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려 동역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기후교회에

젊은 고성목사가 새롭게 부임해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오래된 교회당 건물이 무너질 위험으로 예배당이 폐쇄되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목사와 온 교우들이 힘을 모아 새롭게 교회 건축의 꿈과 비전을 세우고, 올 2월중에 드디어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간증의 기회가 가을 완공의 때에 있으리라 믿으며 온 지방회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고 성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 2017년에는 토요일 메구미교회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회복이 곧 있게 되리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중부 지방회는 늘 모이면 은혜와 나눔이 넘치는 분위기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기도로 힘을 북돋아 주는 지방회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3월에는 합동 신도 연수회에는 많은 지방회 교회들이 참석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며 신앙의 성숙을 기하고자 하며, 10월 종교개혁 찬양대회에는 모든 지방회에 속한 교회들 참가하여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며 주 안에서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하고자 합니다. 모이면 서로 나누며 기도하고 흠어지면 사랑하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성숙한 일꾼이 되는 중부지방회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신년 포부** 총회 선교이념과 과제를 함께 나누며  
관서지방회장 김종현목사



새해는 재일대 한기독교회 총회 산하 각 교회가 바라는 기도와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재일대 한기독교회는 다양한 신학과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교역자 신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총회의 선교 이념과 과제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일이 중요합니다. 각 교회는 총회와 같은 몸이요 공동체인 것을 인식하고 선교이념과 과제를 이해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3회 마이노리티 국제회의 이후 우리 총회는 일본 각 기독교 교단과 단체와 더불어 마이노리티 선교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선교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이노리티 선교 센터 설립되어 일할 수 있도록 전국 교회의 물심양면의 협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일본사회는 헤이트 스피치와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 멸시로 외국인들이 점점 살기 힘든 사회로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총회 산하 전국교회는 일본 사회를 향한 선교적 과제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외국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생사회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총회와 지방회는 총회 산하 각 교회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청년지도자 양성과 미자립교회 교역자들을 지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와 소망을 얻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도 힘써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다시 한번 총회, 지방회, 각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 만을 드러내고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의 정신으로 돌아가 새롭게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년 포부** 앞을 향해 주님과 함께 전진해 간다  
서부지방회장 김승희목사



작년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 지었고 이렇게 새 해(2017년)를 맞이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부 지방회는 현재 13교회와 2전도소로 구성되고 소규모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규칙을 지키며 질서가 있는 평화롭고 안정된 지방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분쟁이 없고 공활이 있는 주

님의 은혜에 의한 성령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외부와의 선교협력 관계에 있어서도 한국의 울산노회 그리고 일본기독교단과 교고교구와 일한교류신도대회(34회)를 통해서 교류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또 서부지방회의 각부각기관에 있어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회가 내세우고 있는 초교파성, 마이노리티성 그리고 다양성에 관한 선교활동의 참여에 대해서는 아직 소극적이고 포괄적인 “하나님의 선교” 를 맡고 싶어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부지방회는 “몇몇 교회의 담임목사 부재”, “미자립교회의 정체, 청년활동에 대한 미배려” 등 중대한 핵심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임직원회에서도 바로 앞에 있는 문제의 처리 때문에 쫓기만 하고 더욱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들에 대해 나타냈던 것을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부 지방회는 사도 바울이 빌리보서 3장12 ~ 16절에 말했다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는 말씀과 같이 개선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아무튼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앞으로 주님과 함께 “press on” 전진하겠습니다.



**신년 포부** **임직원회를 중요하게, 역사인식을 공유**  
**서남지방회장 주문홍목사**



작년엔 구마모토, 오이타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각지에서 연대와 기도를 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에 「선약이 있다」 는 이유로 노벨수상식에 결석한 밥디란씨의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나는 5만명 앞에서도 50명 앞에서도 공연을 해 왔다. 그러나 50명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어렵다. 5만명은 하나의 인격으로 보이지만 50명은 각각의 아이덴티티가 보인다.」 (12월13일 아사히신문)

예배출석자가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한사람 한사람의 존재가 크게 보이는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사람의 신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과 신중하게 마주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가난함 가운데 탄생하시는 구원의 주님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서남지방회는 아마구치현과 규슈, 오키나와, 대마도를 포함한 넓은 지역입니다. 년4회 이상의 임직원회 등의 모임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있지만 지방회가 목회를 위임 받은 목회자들이 고립되지 않게 하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불통」 은 개성이 아니고 기능부전으로 무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각기의 약함을 공동체가 공유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다면 전체가 활성화가 되리라 봅니다. 또한 서남한국기독교회관(서남KCC), 여성연합회가 양날개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불관용의 시대에 제일 소수자에 대한 공격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역사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이웃과의 연대와 자기존재 의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을 서남 KCC를 통하여서, 신자의 대다수인 여성들의 안주의 장소가 되는 활동을 중요하게 연대하고 싶습니다.

**신년 포부** **적극적으로 연대감을 강화하며 성장할 수 있기를**  
**전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김영숙**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을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40:31)

2017년 새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일대한기독교회에 속하는 모든 신도, 여성회 회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여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모든 신도가 성령 충만을 받아 평화를 위해 싸우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기도 합니다.

총회 110주년을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반성하고, 또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목표로하여 전진할 수 있을까요? 다 함께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작년도 「나드 옥합 운동」 에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교회여성연합회의 여러 활동 중에 이 사역이야말로 「작은 기도」 의 결집이며, 이웃으로서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침으로 하나의 형태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협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협력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울 한 해도 여성회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연대감을 강화하며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각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를 위해 피 흘리는 듯한 눈물의 기도와 봉사에 힘쓰고 계시는 형제자매의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빕니다. 은혜

안에서 상대를 인정하고 서로 용서하며, 해결의 길을 주실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년 포부** **교회의 평화를 위해 일치하는 1년**  
**전국장로회장 윤성철장로**



주께 사랑 안에 죄 사함을 받은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전국장로회장으로 새워진 일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만, 집행부의 조직편성에 시간이 걸려 작년3월부터 신 임원으로 집행부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장로회 전체에 정보공유를 생각해 연락망의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 작업 중에 2016년4월14일 쿠마모토 지진이 발생하여서, 쿠마모토 교회와 신도의 피해정황, 총회의 활동에 대해서 4월 17일에 처음으로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서 연락 발신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부족하지만 금년도 계속해서 크고 작은 일까지 가능한 정보 발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통은 서로 떨어져 있어 접점이 줄고 있는 장로들의 의견의 장으로 이 연락망을 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들의 총회 안에는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 한가지로 장로가 관계하는 교회 내의 대립과 곤란, 재정문제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 죄 용서를 받고 하나가 된 우리기에 교회의 평화와 치리(治理)를 위임 받은 장로야말로 출선해서 회개하고 항상 주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자신보다 주님의 마음을 제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반드시 금년은 장로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치하고, 장로들도 일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신년 포부** **전협의 재 부흥을 향하여 다시 볼 시간을 만든다**  
**청년회전국협의회 대표 장정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청년회 전국 협의회(전협)의 회장을 맡고 있는 카와사키(川崎)교회 장정수(張晶洙)입니다. 이번에 복음신문에서 1년간의 포부를 쓰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문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포부는 <청년회 전국협의회>의 재 부흥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취직, 진학 등으로 인한 심적 부담, 환경의 변화, 신앙적 고민, 갈등으로 인하여 교회 출석을 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청년이 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근년 전협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그리스도와 나>, <교회와 나>를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고, 고민, 갈등, 생각을 토로할 수 있는 공간을 <전협>이라는 장소에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 <기도>, <찬송>를 통하여 신앙을 마음속에서 즐기며, 기쁨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저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협의 임원들이 힘을 모으고, 제일대한기독교회 전국 교회 신도와 청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 주 예수님께 계속 기도하는 일도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의 제일대한기독교회를 깊어지고 갈 청년들의 지속적인 신앙적 안식처를 위해 노력해 갈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관내교인전례

# 「찬양과 말씀의 밤」 개최 동경희망기독교회서 10교회가 참가

2016년도 <찬양과 말씀의 밤> 여성연합회의 공동주최로 지난 9월25일 주일 오후,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에서 개최되었다.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 찬양팀의 찬양으로 부터 시작되어 지방회장 김근식목사의 설교와 쿠마모토 지진 지원 현금을 드렸다.



제2부 찬양대회는 동경교회를 시작으로 10교회가 참가하여 연습한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작년 부터 계속하여 요코하마교회의 성무가 특별한 시간을 만들었다.

심사결과 카와사키교회, 요코스카교회, 시나가와교회가 입상을 하였다. 2017년도에는 더 많은 교회가 참가할 것을 기대한다. (보고:이민례)

연관서성가회대

# 邑久光明園가족교회 방문 1999년부터 한센병환자 위문

1996년 한센병요양소 邑久光明園·長島愛生園을 음악집회로 방문한 것을 계기로 1999년부터 邑久光明園家族教会를 방문하였다. 올해도 9월19일, 지휘자 尹聖澤장로를 비롯하여 15명의 대원이 함께 방문했다. 가족교회의 어르신들과 매년 참가해 온 岡山교회의 신도들과 日本基督教団 東中国教区教会 青年交流 캠프에 참가한 청년들과 함께 예배와 찬양을 드렸다.

大阪第一教会 宋南鉉牧師가 사무엘상 30장21절-23절 말씀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가 있었고 關聖連의 「매일 주만 섬기리라」 등, 두 곡의 찬양을 하였다.

친교의 시간에는 네 분 어르신들의 좋아하시는 찬양을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가지며 작은 간증도 들었다. 102년이 된 한센병 환자 격리시설에서 70년, 80년을 살아오신 아픔과 회한이 그분들의 증언으로 매년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그 많은 세월을.....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올해는 네 분만 함께 하셨지만 올해 80이 되셨다는 제일 동포이신 어르신이 혼자 남는 한이 있어도 와 주셨으면 하셨다.



정말 순수하시고 찬양을 즐겨하시는 분들이었다. (보고 : 김옥경 장로)

# 도쿄교회 정종실 명예장로 소천 제46회 총회기 부총장으로서 봉사



지난 2016년11월6일, 동경교회 정종실 명예장로가 지병으로 소천하였다. (향년 83세)

고 정종실 장로는 1933년 일본에서 출생하여 1991년에 동경교회 장로로 장립을 받았다. 제46회 총회기(2001년~2003년) 부총회장으로 섬겼다.

서부지방회

# 「신도의 모임」 개최 파트별로 나누어서 연습해 대합창

11월20일 (주일) 서부지방회신도부에 의한 제14회 신도의 모임이 무코가와 (武庫川) 교회에서 열렸다.

금년에는 장년부담당으로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의 주제로 각교회에서 80여 명의 신도가 모였고, 1부는 청년회.장년회.여성회로 부터 각 1명씩 찬양과 그 찬양에 관한 간증을 들었다.

2부는 헨델의 <할렐루야> 를 파트별로 1시간 가량 연습후에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대합창을 올렸다. 참석자 중에는 처음 온 사람, 악보를 잘 읽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각자 마음을 다해 큰 목소리로 주를 향해 찬양했다. 그후 애찬회에서는 각자 찬양의 성과에 대하여 대화를 주고 받으며 받은 은혜를 공유하면서 <신도의 모임>을 마쳤다. (보고:주경중 장로)



# 기후교회 재해로 인한 기도와 지원 요청

지난 4월25일에 기후 시에서 일어난 지진의 여파로 노후화된 기후교회 건물의 파손 되었다. 7월2일이 되자 건물 오른쪽 외벽 일부가 무너져서 전문가의 검사를 받았는데 더 이상의 보수공사로는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과 건물 붕괴위험으로 당장 퇴거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로 인하여 지난 7월17일부터 기후교회는 목사 사택과 예배당을 폐쇄하고 일본기독교단 카요교회 예배당을 임시에배처소로 사용하며 교회 재건을 위한 절실한 기도과 모금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0월14일에 있었던 총회상임위원회에서 총회내 교회 모금과 에크로프용자 신청을 승인받은 기후교회는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지난 1997년에 구입한 교회 주차장 땅에 예배당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하고 9월말에 입당할 것을 목표로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난 당시 건축 이월금 259만엔 밖에 없었던 기후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 약3500만엔 가까운 현금이 모였다. 하지만 임대한 땅에 세운 기존 건물의 철거와 목사관을 교회 2층에 마련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교회당을 지으려면 적어도 6000만엔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뜻 밖의 재해로 인하여 장기적 계획없이 시급히 진행되는 교회건축이기에 여전히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며 우리 총회 안의 믿음의 동역자로인한 지속적인 기도와 건축모금이 절실한 상황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보고 : 고성 목사)